Special

Special Awards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
예술경연대회 어워즈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13:00
장소 : 다빈치 스튜디오

주최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주관 Special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스페셜K조직위원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401호
TEL. 02-304-6211 FAX. 02-304-6311 E-MAIL. jangyechong@fdca.or.kr

주최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주관 Special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스페셜K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Special Awards

2020 스페셜K 대상 '바디하모니'

인사말



안녕하세요.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조직위원장 신동일입니다.

가을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찡하고 스치는 10월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어워즈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스페셜K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고 장애에 제약이 없는 환경 조성과 무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예술인을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연대회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스페셜K 어워즈는 각 부문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고점수를 획득한 5팀과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3팀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팀의 결선 무대가 펼쳐지며, 참가하는 모든 장애예술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쳐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실현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 예술인들과 관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관객들의 큰 박수와 열띤 응원의 소리를 그립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아쉬움을 전하며, 2022년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 외빈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스페셜K 어워즈를 시청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조직위원장

신동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배은주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 된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는 경연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전문예술인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경연대회 참가자분들과 경연대회 조직위원회 모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어워즈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실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무대와 예술 자체를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신동일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배은주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케이'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해 애쓰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장애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케이'는 그동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열정과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도 장애예술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화적·예술적 돌봄으로 삶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참가자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케이'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축사



반갑습니다.

푸르른 하늘과 물들기 시작하는 잎새가 이제 완연히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의례껏 감상과 추억에 젖게 되는 걸 보면 가을은 참 예술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배은주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채로운 분야를 통합하여 경쟁하는 장애예술 경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덕분에 해마다 각 분야의 장애예술인 역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예술은 경연을 통해 스타가 배출되고, 스타가 있어야 그 예술이 발전한다는 진리에서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예술인 참가자 분들의 훌륭한 경연을 비대면으로 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관객과 소통해야 하는 예술인 여러분들은 더 아쉬우실 것이고, 코로나 영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도전하는 모습은 다른 예술인은 물론 나아가 이 사회에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장애예술이 꽃피는 그 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가 모든 장애예술인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얻는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안중원

Introduction

Special K

스페셜K는 장애인의 공연예술 경연을 통한 예술적 가치 극대화와
신진 장애예술인의 발굴을 목적으로 2013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경연분야는 국악,무용,실용음악,연극·뮤지컬,클래식의 5개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올해 제9회를 맞이하여 현재까지 약 3,5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는 꿈을 꾸는 모든 장애예술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스페셜K를 통해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능동적인 예술 활동 참여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선 결과



국악

금상 김보경
은상 장성빈
동상 홍교영
장려상 얼쑤 | 도래샘 | 마루연희단 | 서정민 | 황석일



무용

금상 한국 파룻하우스팀 청년예술가팀
은상 이은수
동상 황사랑
장려상 하늘나무무용단 | LUX-빛 | 비욘드무용단 | 김종현
레인보우식스 | 에코씽씽



실용음악

금상 황산하
은상 임성제 | 박현선
동상 이진영 | 이태양 | 김국환
장려상 드림위드앙상블 | 콘솔피아노앙상블 | 김준영 | 우병욱
최리밴드 | 강창일 | 유재희



연극·뮤지컬

금상 골프존파스텔합창단
은상 다소니뮤지컬단
동상 임영수
장려상 소망매직드림팀 | 정해승



클래식

금상 이유빈
은상 권오빈| 강유경
동상 서초한우리 오케스트라 | 오미아 뷰앙상블 | 이정현
장려상 신주용 | 조정연 | 박혜연 | 비바체듀오 | 공민배 | 송우섭
트라이본즈 뷰앙상블 | 규니브라더스 | 임노훈 | 강송강

COMPETITION

사회 : 한 석

PROGRAM

01 **권오빈** | 클라리넷
Carmen Fantasy by P.Sarasate for Clarinet and Piano

02 **박현선** | 보컬
Sia – Chandelier

03 **골프존파스텔합창단** | 뮤지컬
Love So Fine (곡 : Bob Burroughs)
1. Love 2. The Tongue 3. Do You Know

04 **이유빈** | 피아노
Brahms, Piano Sonata No.2 1st Mov

05 **황산하** | 보컬,색소폰
'Let's go together – 황산하 (자작곡)'

06 **김보경** | 가야금
춘설 – 황병기

07 **임성제** | 밴드
JerryC – Canon Rock

08 **한국 파룻하우스팀 청년예술가팀** | 현대무용
저 달처럼, 우리도....
(공동안무 : 김진우, 엄혜경, 연예린, 이하은)

클래식

★ 본선 | 은상



권오빈 | 클라리넷
1998년생 자폐

동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즐겨치면서 음악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중학교 1학년때 복지관 음악치료실에서 클라리넷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하시며 수제자가 될 것 같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고, 이후 클라리넷이 좋아졌고, 클라리넷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클라리넷 연주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클라리넷은 저에게 자신감과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선물 저는 클라리넷과 음악을 만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사회에 통합되고 연주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음악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친구이며, 음악을 할 때면 다정한 친구와 노는 것처럼 언제나 즐겁고,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연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음악은 다정한 친구이고, 행복을 주는 선물이고, 제 삶입니다.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주가 열심히 준비한 곡으로 무대에서 관객과 서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꿈에 영향을 주는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노력해서 어렸을 적 저와 비슷한 또 다른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 모델이 되고 싶고, 필요하면 악기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소개_ ' Carmen Fantasy by P.Sarasate for Clarinet and Piano'
비제의 Carmen은 스페인 세빌리아 지방을 배경으로 친숙하고 관능미 넘치는 선율과 화려한 색채감과 이국적 정서, 깔끔한 극적 구성이 돋보이는 오페라다. Carmen Fantasy는 비제의 카르멘 오페라에서 유명한 테마를을 바탕으로, 19세기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데 사라사테가 작곡했다. 정열의 집시 여인 카르멘과 순수한 청년 돈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이 주는 안타까움을 그린 스페인 색채를 짙게 풍기는 3박자 리듬과 빠름과 느림을 반복하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춤곡이며, 원래 바이올린을 위한 곡으로 작곡됐다. 이 곡을 니콜라 발데루가 클라리넷 곡으로 편곡했다. 클라리넷 연주자들에게는 몇옥타브를 넘나들며 빠른 기교가 필요한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다.

실용음악

★ 본선 | 은상



박현선 / 보컬
1991년생 시각

초심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음악을 늦게 시작한 편이라 항상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어려운 점이 많았고 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를 떠올렸고 저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행복을 느꼈다는 메시지를 떠올리며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성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어 늘 항상 테크닉 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 이런 저런 방법으로 연습 하던 중 문득 꼭 가수와 똑같이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의 해석과 표현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색을 찾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술은 부족하지만 개성 있는 표현력과 곡 해석력으로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무대 스페셜K 어워즈에 진출하게 된 것 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장애 예술인들과 함께 경연을 할 수 있게 되어 많이 설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워즈 에서는 본선 무대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좀 더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무대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소개_ 'Sia – Chandelier'

가수 Sia가 부른 Chandelier은 Sia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sia는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약물과 술에 의존하여 살아가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18살에 음악활동을 시작하면서 첫사랑을 만났지만 가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 마저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픈 과거와 상처를 녹여낸 곡입니다. 슬픈 멜로디와 대조되는 화려한 고음과 팝적인 사운드는 가수로써의 자신과 약물과 술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타락한 자신의 모습이 공존하는 부분을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곡 속의 여인과 과거의 제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꼈고 원곡과는 다른 피아노 사운드로 슬픔을 표현하였으며 과거의 힘겨웠던 제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에 녹여 보았습니다.

연극·뮤지컬

★ 본선 | 금상



골프존파스텔합창단 / 뮤지컬

김나연 | 1995년생 지적
김혜린 | 1987년생 지적
박무룡 | 2002년생 지적
박정민 | 1997년생 지적
송현경 | 1994년생 지적
안형규 | 1992년생 자폐
전지원 | 1989년생 자폐
주희진 | 1996년생 지적
황일선 | 2001년생 지적

포기하지 않는 열정 어릴 때부터 '너는 안돼, 너는 못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도 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편견 속에 시도조차 못 해본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오디션을 보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악보 보는 것조차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 우리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더 돋보이기보다는 다 같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내고자 하는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예술인이 아닌 프로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이 아닌 프로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합창단이자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라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본인의 목표를 향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모두에게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통해 희망을 느끼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소개_ 'Love So Fine (곡 : Bob Burroughs)'

미국의 뮤지컬 작곡가 Bob Burroughs의 곡으로 Love So Fine은 나와 우리 주변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노래 한 곡입니다.

1. Love 'Love'는 주변을 살펴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자는 곡입니다.
2. The Tongue 'The Tougue'는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조심하자는 곡입니다.
3. Do You Know 'Do You Know'는 나 자신의 소중함 그리고 한 사람의 중요함에 대한 곡입니다.

클래식

★ 본선 | 금상



이유빈 | 피아노

2003년생 발달

큰 보람과 기쁨 하루 일과를 음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잠자리 들기 전 음악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는 악보를 분석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며, 여섯 살 때 피아노를 처음 접하였고 그 이후 피아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예고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으며 곡을 쓰는 작업이 때론 어렵지만 재미있고 제가 쓴 곡이 악기로 연주될 때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최고의 장난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키보드와 기타 치시는 모습을 듣고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익숙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여섯 살 때 이웃에서 얻은 낡은 피아노는 최고의 장난감이었고, 잘 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레슨 받게 되었습니다.

삶 그 자체 저에게 있어 예술, 특히 음악은 저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매일 먹고 자고 마시는 일상처럼 음악없는 날들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음악을 듣고 악보를 보고 연주하며 상상하는 일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프로그램 소개_ 'Brahms, Piano Sonata No.2 1st Mov.'

브람스의 최초의 피아노 소나타로 브람스의 창작 초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정열적이며 여성적인 섬세한 면이 깃들어져 있으며 각 악장의 주요한 선율은 거의 모두 상호 동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브람스의 구성적인 의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실용음악

★ 본선 | 금상



황산하 | 보컬&색소폰

1999년생 자폐

시작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 직접 피아노를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였는데 악보를 보지 않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다가 악보 보는 법을 배워서 악보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악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색소폰, 드럼, 신디사이저, 미디작곡 등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예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제가 예술인이 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예술인을 꿈꾸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통로 저에게 음악이란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자폐성발달장애는 사회성도 부족하고 표현도 부족해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어려운데 음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저의 언어이자 소통의 통로입니다.

프로그램 소개_ 'Let's go together – 황산하 (자작곡)'

황산하의 자작곡인 Let's go together 은 2번째 앨범 타이틀곡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시기에 모두가 힘을 내어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밝고 신나는 멜로디가 흐르는 곡이며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해당 곡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Let's go together 곡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악

★ 본선 | 금상



김보경 | 가야금

1999년생 시각

음악인에 대한 꿈 저는 중학교까지 한빛맹학교에 다녔었는데, 학교 안에 예술단이 있어서 예고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중창단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합격하게 되어 6년 동안 중창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아마 이때부터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크고 작은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많은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시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성취감 저는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손에 줄의 간격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좌절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악보를 미리 암기하고, 손에 줄의 간격을 익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처음과 달리 지금은 노하우도 생기고 많은 경험을 통해 곡을 익히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곡 한곡 완성해서 연주할 때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아닌 진정한 국악인 저는 장애가 있는 국악인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그냥 연주를 잘 하는 국악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장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장애가 먼저가 아닌 연주 실력으로 먼저 기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나가는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확실히 예술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느리더라도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_ '춘설 – 황병기'

1991년 MBC에서 위촉하여 작곡한 17현 가야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새봄" 중 가야금 부분을 독립시켜 독주곡으로 만든 곡이다. 아직도 눈이 오는 이른 봄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린 동심 어린 곡이다. 전부 5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소제목이 붙어있다. 제1장 '고요한 아침'은 서주에 해당하는 화음으로 장식 된 맑고 조용한 선율로 되었다.

실용음악

★ 본선 | 은상



임성제 | 밴드

2002년생 자폐

경험 기타 연주가이신 저희 아버지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기타 연주곡을 많이 듣고 또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시작으로 피아노, 드럼 등 많은 악기를 가르쳐주시면서 저를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주셨고 저도 아버지에게 배우고 음악을 하면서 아버지와 여러 축제 공연도 함께 다니고 공연 외에도 대회도 여러 대회에 지원하고 무대에 서면서 공연과 대회를 통틀어 여러번의 무대에 서서 저의 주 종목인 기타 외에도 여러 악기로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음악실력을 보여주면서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마음 가짐 스페셜K에 참가하면서 위의 질문의 대답처럼 무대 위에서 준비한 무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고 무대를 보여주는 것과 높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와 자신감을 최대한 올리는 데 지원동기에 따른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 자신이 성장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저 스스로에게 뿌듯한 감정을 느꼈고 새로운 자신감에 관하여 첫 경험을 쌓았으니까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도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무대를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 제가 만약 나중에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재능에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의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꿈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소개_ 'JerryC – Canon Rock'

제가 이번 스페셜K 어워즈 무대에서 선보일 작품은 대만의 기타리스트인 JerryC의 〈Canon Rock〉이라는 연주곡인데요, 이 곡은 우리가 아는 클래식 연주곡인 요한 파헬벨의 〈캐논〉을 일렉기타 연주곡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제가 원맨밴드로 편곡하여 바이올린, 베이스기타, 드럼, 일렉기타 세컨드를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MR에 맞추어 메인 일렉기타로 직접 연주를 하는 형식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뒷배경에 나오는 영상은 제가 직접 연주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입니다.

무용

★ 본선 | 금상



한국 파릇하우스 청년예술가팀 / 현대무용

강구열 | 2004년생 지적
김도율 | 2000년생 발달
박준성 | 2002년생 지적
신중혁 | 2003년생 자폐
우지성 | 2005년생 자폐
이은신 | 1995년생 발달
이재빈 | 2002년생 지적
진연호 | 1992년생 지적
황성진 | 1987년생 뇌병변

아름다운 청년의 시간 우리팀의 시작된 계기는 서로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통점은 무대에 서고 싶어서입니다. 무대에서 나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박수 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입니다. 특히 우리 팀은 장애·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하는 팀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다름이 아닌 청년과 예술가라는 같음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함께 춤추면서 아름다운 청년의 시간을 당당하게 만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밑거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려운 테크닉과 반복적인 훈련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은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팀'이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 장애의 특성을 '틀림'이 아닌 '다름'을 당당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무용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다름이 '아름답다'고 기억되는 그런 무용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_저 달처럼, 우리도… (공동안무: 김진우, 엄혜경, 연예린, 이하은)
하늘의 달은… 아침에 떠 오르는 태양보다는 화려하고 뜨겁지는 않지만 어두운 밤 우리가 길을 밝혀주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뜨거운 태양마저 품어버리는 저 달처럼 우리도 서로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고 품어주길 바라며 오늘 이 무대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으로 서로의 달이 되길 하 이야기하듯 춤을 춰봅니다.

심사 / 시상

심사위원장



이문태
2018평창동계 패럴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서울G20 정상회의 문화행사 총감독
제26회 한국방송대상 TV 프로듀서상

심사위원



김희준
서울오케스트라 단장
Leopold-Bellan Concours 1등
사회적기업 유공 장관상 수상



독고정은
나다 페스티벌 대표
한일 문화교류축제 ePs in Seoul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Day캠페인 문화예술 컨텐츠 기획 및 진행



이용우
前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라디오 도전 골든벨' 연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야구중계방송 '내 마음속의 다이아몬드' 연출



정진세
극단문 대표
10분 희곡 페스티벌 축제 감독
삼일로 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 프로그래머 기획

시상내용

스페셜K대상(국회의장상)	5,0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000,000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상	1,000,000원
스페셜K 심사위원장상	500,000원
스페셜K Performance상	500,000원
스페셜K Talent상	500,000원
스페셜K Passion상	500,000원
스페셜K Challenge상	500,000원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배은주 |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교류로 장애예술인이 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하며 예술권을 확보하고 예술 활동을 전문 직종으로 개발하여 고용 창출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선진 문화 사회의 실현으로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단체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꿈틔움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빛소리친구들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사.우리들의눈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주요사업

Special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Festival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대한민국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Special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사무국

운영위원장 | 정원일
운영본부장 | 윤혜원
기획홍보팀 | 곽무현 팀장
운영관리팀 | 정효진 팀장, 김용필 팀장
행사진행팀 | 이동한, 이현우

조명
조명감독 | 안태현

음향
음향감독 | 안인석

영상
영상감독 | 주성호

진행
사회자 | 한 석
수어통역사 | 한은주, 이민아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이문태 (2018평창동계 패럴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어워즈
김희준 (서울오케스트라 단장)
독고정은 (나다 페스티벌 대표)
이용우 (前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정진세 (극단문 대표)

본선

클래식
김희준 (서울오케스트라 단장)
강성애 (나사렛대학교 교수)

국악
김성예 (우리소리 문화원 대표)
김미숙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성악단 지도위원)

연극·뮤지컬
신영철 (한서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겸임 교수)
류지미 (한국 영상대학교 교수)

무용
정용진 (정재만 전통춤 보존회 회장)
안덕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실용음악
이상용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김승한 (그린플러그드 대표)

2021 스페셜 K PEOPLE

강유경
강송강
강창일
권오빈
공민배
김국환
김준영
김종현
김보경
박현선
박혜연
서정민
송우섭
신주용
우병욱
유재희
이은수
이유빈
이태양
이정현
이진영
임노훈
임성제
임영수
장성빈
정해승
조정연
황사랑
황산하
황석일
홍교영
골프존파스텔합창단
다소니뮤지컬단
소망매직드림팀
드림위드 앙상블
콘솔피아노 앙상블
최리밴드
얼쑤
도래샘
발달장애 마루연희단
하늘나무무용단
LUX-빛
한국 파릇하우스 청년예술가
비욘드 무용단
레인보우식스
에코씽씽
서초한우리 오케스트라
오미아뷰 앙상블
비바체듀오
트라이본즈뷰 앙상블
규니브라더스





